



왼쪽부터 이선규, 김윤아, 김진만.

자우림 “전쟁같은 삶에서 음악은 치유제”

12집 ‘라이프!’서 전쟁·분노 표현…26~28일 이화여대서 콘서트

“전쟁 같은 삶에서 음악의 역할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주저앉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만)

밴드 자우림은 지난달 발표한 정규 12집 ‘라이프!’(LIFE!)에서 1997년 데뷔 이래 28년 음악 여정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격한 분노와 에너지를 쏟아냈다.

앨범에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 같은 순간과 사랑 등 다양한 층위의 감정이 세련된 사운드로 춤춰지며 엉겼다. 트리플 타이틀곡 ‘라이프!', ‘마이 걸’, ‘스타스’ 등 총 10곡이 담겼다.

자우림의 김윤아(보컬)는 앨범의 핵심 키워드 ‘전쟁’에 대해 “극심한 경쟁과 혼란도 전쟁이라고 불린다”며 “인류가 존재한 이후 인생이 전쟁이 아니었던 순간이 있겠느냐”고 짚어냈다.

그는 “이번 앨범의 전반부가 ‘인생에서 개인이 별이는 사투’이고, 후반부가 ‘인간과 세상이 별이는 전쟁’”이라며, 중간에 수록된 ‘스타스’는 전장에 편한 송이 꽃과 같은 존재”라며 “여러분의 치열한 인생에서 자우림의 음악이 ‘스타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우림은 지난달 앨범 발표를 앞두고 음악 감상회를 열어 팬들에게 먼저 신곡을 들려줬다. 30년 가까이 음악 외길을 걸어온 베테랑들이지만, 음악 작업의 결과물을 처음으로 팬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는 인상 깊게 남았다.

김진만(베이스)은 “팬 여러분 모두 설레던 눈빛이었는데, 40분의 청음을 마친 뒤 다시 무대로 올라가자 더욱더 설레는 눈빛으로 바뀌었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고 되돌아봤다.

이선규(기타)도 “매 앨범 작업을 마친 후의 자화자찬은 자우림의 오랜 전통이고, 그 마침표는 늘 팬들이 찍어주곤 했다”며 “팬들과 처음으로 가진 음악 감상회를 통해 이번 앨범의 마침표는 특히 진하고 깊숙이 찍힌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 수록곡 가운데 ‘마이 걸’, ‘뱀파이어’,

‘스타스’는 비틀스, 퀸, 오아시스 등 유명 뮤지션이 거쳐 간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이뤄졌다. 멤버들은 모험을 떠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선규는 “두명 옥탑방 작업실에서 시작한 밴드가 꿈꾸던 1집을 냈고, 이후 큰 고비 없이 정규 11집까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지금이라면 어릴 적부터 꿈꾸던 애비로드 스튜디오 작업이라는 호사를 누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도전했다”며 “자우림 음악의 뿌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자우림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격파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아는 “(애비로드 스튜디오 작업은) 좋은 웰리티를 담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저는 모험을 좋아한다.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로의 텁협이었다”고 말했다.

자우림의 도전과 모험은 단지 새로운 녹음실에 만 머무르지 않았다. 수록곡 ‘유겐트’에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스 사운드를 스테레오 음향으로 담아냈고, 앨범 전반에서 영어 가사가 자연스레 한글 가사에 녹아들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김윤아는 “이번 앨범에서는 신스팝과 하드록 사운드를 융합해봤다. 음가(音價)가 거의 없는 외침에 가까운 가장을 시도했다”며 “거의 전곡에서 폭발적 사운드를 내도록 선곡 단계에서부터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자우림은 지난 1997년 데뷔 이래 록의 불모지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매직카펫라이드’, ‘릴립천사’, ‘팬이야’, ‘하하하하’, ‘헤이 헤이 헤이’,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팬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봤을 긁직한 히트곡을 내놓으며 활약해왔다.

자우림은 오는 26~28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에게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연합뉴스

고교시절 ‘소년보호처분’ 이력
논란 하루만에 연예계 은퇴 발표
형사·독립투사 연기로 주목받아
이미지와 상반된 과거에 당혹감
“청소년 시절 응당한 대가 치뤄”
과거 이력 비난 부적절 주장도

배우 조진웅(49)이 이른바 ‘소년범 논란’ 이후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21년 간의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짐작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조진웅은 드라마 ‘시그널’, 영화 ‘경관의 피’, ‘독전’ 등에서 형사 역을 맡았고,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로 등장하면서 흥행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 특사로 참여하고, 올해 제80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이번에 제기된 소년범 논란은 그가 배우로서 쌓아온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와 고리가 큰 내용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1996년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동문 극단 ‘동녁’에서 연기에 입문한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공식 데뷔했다.

이후 영화 ‘비열한 거리’(2006)와 드라마 ‘술야국집 아들들’(2009) 등으로 대중에 점차 얼굴을 알린 그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와 천만 영화 ‘명량’(2014)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인지도를 키웠다.

조진웅은 특히 여러 작품에서 형사 역할을 도맡



배우 조진웅

으로 방송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조진웅은 ‘독전’(2018)과 ‘독전 2’(2023), ‘경관의 피’(2022)에서도 연달아 형사로 등장했고, ‘블랙마니’(2019)에서는 검사 역을 소화했다.

이 같은 이력을 배경으로 조국가변죄 조직의 추격기를 그린 SBS 스페셜 다큐 ‘범죄와의 전쟁’의 내레이션(해설)도 맡았다. 현재 방송 중인 4부작 다큐멘터리로, 조진웅의 은퇴 선언 직후 SBS는 해설자를 교체하고 이미 방송된 분량도 수정을 진행 중이다.

영화 ‘대장 김창수’(2017), ‘암살’(2015) 등에서 독립투사를 연기했다.

이 이력은 2021년 그가 독립운동가 흥법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 국민 특사로 함께하는 계기가 됐다. 조진웅은 당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파묘식부터 대한민국 대전현충원의 유해 봉환식까지 전 과정에 동행했다.

당시 KBS 1TV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흥법도 장군을 모셔오다’를 방송했지만,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조진웅은 국민특사 활동 이후 흥법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의 내레이션도 맡았다.

그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년범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돋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폐이스북에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학물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덫’에 걸린 국민판사

하루아침에 ‘국민판사<사진>’에서 돈 안 되는 공익 변호사로 인생이 뒤바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tvN ‘프로보노’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처음 방영된 tvN 새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1화 시청률은 전국 기준 4.5%로 집계됐다.

첫 방송에서는 이른바 ‘국민판사’였던 강다윗(정경호 분)이 뇌물 사건에 휘말리며 인생이 꾀이되는 과정이 담겼다.

지방 고졸 출신인 강 판사는 능숙한 처세술과 통쾌한 판결로 40대 젊은 나이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만,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의 술자리 다음 날 차 안에서 12억 원이 담긴 사과박스가 발견되며 혼란에 빠진다.

그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자신이

tvN ‘프로보노’ 첫 방송 시청률 4.5%



상자를 직접 옮겨 담는 영상이 확인되고, 그날 만난 사람이 고향 친구를 사칭한 범죄자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결국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프로보노’는 능청스러운 미소 뒤에 야망을 숨긴 정경호의 코믹한 연기로 유쾌한 시작을 알렸다.

/연합뉴스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칭: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2021년

• 유산면적

| 명칭 | 합계 (㎢) | 유산지역 (㎢) | 인증구역 (㎢) |
|----------|----------|----------|----------|
| 총면적 (㎢) | 2,030.03 | 1,284.11 | 745.92 |
| 서천 갯벌 | 104.66 | 68.09 | 36.57 |
| 고성 갯벌 | 74.11 | 55.31 | 18.80 |
| 신안 갯벌 | 1,773.40 | 1,100.86 | 672.54 |
| 보성-순천 갯벌 | 77.86 | 59.85 | 18.01 |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면적(605.24㎢)의 약 86%, 국가면적(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안에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철새를 보이는 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 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개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층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문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면이활동, 서식굴, 풍동어 싸움, 엽낭계,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컨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풍동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방개

염생식물의 역할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